해방 후(1945. 8~1950. 6)의 문학

金 永 和*

목 차

Ⅰ. 문학의 부활
Ⅱ. 문인들의 반성
Ⅲ. 해방기념 시집
Ⅳ. 문단의 분열과 민족문학론
Ⅴ. 순수시와 경향시
Ⅵ. 해방 후의 소설들

Ⅰ. 문학의 부활

1. 국어의 회복

1945년 8월의 해방은 우리 문학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문학의 부활을 뜻한다. 그 가운데서도 잃어 버렸던 국어를 회복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개화기에 들어와서 국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글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

*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敎授

국어는 연구되고 또 다듬어져 왔다. 그런 과정에서 문법이 정비되고 문장도 세련되어 왔다. 그것이 그대로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개화기 문학은 조선시대의 문학보다 언어와 문장에 있어서 한결음 진전되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되었다. 이를테면 1920년대의 문장이 개화기 문장보다 세련되었고, 1930년대의 문장은 1920년대의 문장보다 진일보했다. 1920년대의 김동인, 현진건의 소설 문장과 1930년대의 이태준, 이효석의 소설 문장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세련된 문장을 쓰고 있다. 이것은 문인들이 일제의 탄압 아래서 사상성에 있어서는 물러서는 경우가 있어도 문장을 가꾸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탄압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오면서 우리 문학은 탄압을 받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말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문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언어로 문학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언어의 상실은 곧 문학의 상실을 의미한다. 특히 1940년대에 들어 와 그것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고, 해방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문학의 암흑기가 계속되었다.

해방은 언어를 되찾은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문인들에게 있어서는 무기를 되찾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해방은 문인들에게는 마음껏 우리 언어로 작품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표현의 자유

일제 때의 우리 문학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 문학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민족주의, 사회주의사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20년대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 한용운, 염상섭, 현진건 등에 의해서 민족주의사상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표현되었고, 조명희,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등의 문학에 사회주의사상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민족주의, 사회주의사상을 더 이상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었다. 엄격한 검열과 통제 아래 문인들의 작품 활동은 사상적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래서 우리 민족에게 절실한 것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사상은 그 시대 우리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한 사상이다. 그것이 일제에 의해 통제되었고,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겼다. 또 20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에 번져나간 사회주의사상도 일제에 의해 그 활동이 금지되고, 표현의 자유도 빼앗겼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사상과 운동은 민족의 독립과 연결되어 추진했던 점도 있으나,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우익 군부세력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독립이 용인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좌익사상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 안에서의 좌익사상에 대한 탄압이 식민지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일제 때 우리 민족을 통합할 수 있었던 사상은 민족주의사상과 사회주의사상이다. 이 사상들은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삶을 지도할 수 있는 당대의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상은 대립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협력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펴 나아갔다. 그것이 그 때 우리 민족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이었다. 따라서 문인들의 의식 속에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사상은 깊이 자리해 있었고, 그것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문인들은 문학의 사상성보다 예술성에 눈을 돌리고 민족어의 발굴과 세련된 작품 기교의 개발에 주력해서 이른바 순수문학을 많이 내놓았다. 1930년경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양산(量産)된 작품들은 예술적 성숙도는 있었지만 사상성이 결여된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 문인들은 빼앗겼던 사상의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마음놓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문학을 창작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3. 시집 발간

해방 후에 시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일제 때 발간할 수 없었던 시집들이 해방과 더불어 햇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새로운 결의(決意)로 문학을 다시 시작하려는 문인들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1945년 12월 12일 간행된 「해방기념시집」을 필두로 이 때에 나온 시집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46년 : 이육사, 「육사시집」(서울출판사)
이상화, 「상화시집」(을유문화사)
정지용, 「백록담」(백양당)
박종화, 「청자부」(고려문화사)
박목월 · 조지훈 · 박두진, 「청록집」(을유문화사)
권 환, 「동결」(건설출판사)
오장환, 「병든 서울」(정음사)
1947년 : 모윤숙, 「옥비녀」(동백사)
유치환, 「생명의 서」(행문사)
설정식, 「종」(백양당)
임 화, 「회상시집」(건설출판사)
신석정, 「슬픈 목가」(낭주문화사)
1948년 : 유치환, 「울릉도」(행문사)
서정주, 「귀촉도」(선문사)
설정식, 「포도」(정음사)
상 민, 「옥문이 열리던 날」(신학사)
김기림, 「새노래」(아문각)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정음사)

해방 이듬해부터 3년간 시집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배경에 해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인들의 해방을 계기로 문학 활동에 활발하게 나서겠다는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문학의 부활이기도 하다.

4. 신문, 잡지의 발간

해방 후 일제 말기에 폐간되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복간되었다.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으로 바뀌어 발간되고, 중앙신문, 해방일보, 현대일보, 경향신문, 민중일보 등이 새로 발간되었다.

또 잡지도 새로 나왔는데 「신천지」, 「대조」, 「백민」, 「문학」, 「문예」 등이 이 때에 발간되었다.

이와 같은 신문, 잡지의 발간은 문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때의 문인들은 이런 신문, 잡지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고 또 논쟁했다. 그것은 문학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다.

Ⅱ. 문인들의 반성

문인들은 지식인이요, 지도층이다. 특히 일제 때는 그랬다. 따라서 지식인으로서 또는 지도층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느냐 하는 문제는 해방과 더불어 당연히 제기된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제 때 문인들의 행적은 대체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영달을 꾀한 사람, 둘째는 외적 압력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소극적으로 협력한 사람, 셋째는 붓을 던지고 낙향한 사람이다. 문인들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나눈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인 윤곽은 그렇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7.)과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1,2」(실천문학사, 1986.8.)에 의하면 일제 때의 문인들의 행적은 어느 정도 드러난다. 자발적이든 강요된 것이든 문인들의 양심에 먹칠을 한 것

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런 문인들은 해방 후 붓을 꺾어 던지거나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문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붓을 꺾은 문인은 극소수에 그쳤고, 자기반성과 고백을 한 문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인들의 의식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 첫째는 〈문학자의 자기비판〉이라는 좌담, 둘째는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이다.

1. 문학자의 자기비판(좌담회)

1945년 12월 김남천, 이태준, 한설야, 이기영, 김사량, 이원조, 한효, 임화 등이 봉황각에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주제는 〈문학자의 자기비판〉이다. 거기에 참석한 문인들은 새로운 문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문인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효는 "이번 전쟁(태평양전쟁=인용자)을 통하여 조선 사람 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협력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과거에 대해 조금도 감춤이 없이 준열한 자기비판을 한다는 것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태평양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에 자의든, 타의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화는 이렇게 말했다.

> 자기비판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선 문학의 정신적 출발점의 하나로서 자기비판의 문제는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비판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느냐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이번 태평양전쟁에 만약 일본이 지지 않고 승리를 한다——이렇게 생각해 볼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것이 자기비판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내가 한 명의 초부로 평생을 두메에 묻혀

> 끝내자는 한 줄기 양심은 있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속 어느 한 귀퉁이에 강렬히 숨어 있는 생명욕이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고 싶지는 않았던가? 이것은 내 스스로 느끼고 두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입 밖에 내어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 표시되었을 리 만무할 것이고 남이 알리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나만은 이것을 덮어 두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자기비판의 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한 점을 덮어 둔 자기비판이란 하나의 허위상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 겸허하게 이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의 '비밀'을 솔직히 덮어 두는 것으로 자기비판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비판에 겸허가 왜 필요한가 하면 남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이게 아니라, 남은 나보다 착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나만 가장 나쁘다고 엄히 긍정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임화의 이런 발언에 좌담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다. 자기비판은 양심의 문제인 만큼 밖으로 드러내 놓지 않더라도 마음 속으로 반성하고 새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해방 후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문학을 하겠다는 결의는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친일 또는 부일(附日)했던 문인들의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준엄한 비판이 따를 것이다.

2. 민족의 죄인

채만식의 소설 「민족의 죄인」은 1946년 5월 19일 집필된 작품이다. 발표는 2년 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백민」에 연재되었다.

이 소설에는 친일했던 작가가 해방 후에 수모를 당하는 과정, 그리고 친일했던 일에 대한 반성과 아픔을 그리고 있다. 중견 작가인 이 소설의 주인공은 경찰에 의한 가택수색, 경찰 출두, 그리고 두 번의 유치장행을 경험했다. 형 친구의 주선으로 석방되자 그 후부터는 일제의 요청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가 한 일은 첫째는, 조선소, 탄광, 공장 등 생산현장을 견학한 후 그

것을 소재로 소설을 쓰는 일, 둘째는 강연행각을 나선 일이다. 강연 내용은 ①일본군대 또는 징용에 나가라, ②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 일본인과 대등하게 되자, ③내선일체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거듭되는 외압으로 마지못해 한 일이기는 하나 양심의 고통이 따랐다. 그런데 해방 후에 그 일로 수모를 당하면서 더욱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소설 내용은 해방 전후 우리 문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주인공의 어느 구석에는 채만식의 분신도 있을 것이다.

다른 작가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이만한 소설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작가로서 바람직한 태도다. 그 점에서 채만식은 돋보인다.

Ⅲ. 해방기념 시집

1945년 12월 12일 해방을 맞은 기념으로 문인들은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의 시집을 내놓았다. 「해방기념시집」이 그것이다.

이 시집에 시를 발표한 문인은 정인보, 홍명희, 안재홍, 이극로, 김기림, 김광균, 김광섭, 김달진, 양주동, 여상현, 이병기, 이희승, 이용악, 이헌구, 이흡, 임화, 박종화, 오시영, 오장환, 윤곤강, 이하윤, 정지용, 조벽암, 조지훈 등 후에 좌·우로 분열되어 따로 조직을 만들고 서로 대립했던 문인들이 망라됐다.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시는 예술적 성과는 미흡하다. 해방 후의 감격을 그대로 노래한 시가 대부분이고 오랜 사색과 시상을 다듬은 연후에 씌어진 시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집이 의미가 있는 것은 분열 이전의 문인들의 시라는 점에 있다. 예술적 성과와는 별개로 후일 좌와 우로 나뉜 문인들 가운데 한 작품씩을 살펴본다. 전문적인 시인이 아닌 소설가와 평론가의 시라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독립만세!
독립만세!
천둥인듯
산천이 다 울린다.
지동인듯
땅덩이가 흔들린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라도 꿈만 같다.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
산천도 빛이 나고
초목도 빛이 나고
해까지도 새빛이 난듯
유난히 명랑하다
이러한 큰 경사
생외에 처음이라

마음 속속드리
기쁨이 가득한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진다
억제하랴 하니
더욱 더욱 쏟아진다

천대 학대 속에
마음과 몸이 함께 늙어
조만한 슬은 일엔
한방울 안나도록
눈물이 말랐더니
눈물이 보가 있어
오랫동안 막혔다가
갑자기 터젓는가?
(후략)

홍명희의 「눈물 섞인 노래」

1930년대 「임거정전」을 썼던 홍명희의 시다. 개화기 시가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단순한 형식으로 해방을 맞은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훗날 북한 정권의 고위직에 오른 사람의 시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사상성이 없다.

누나야
이제 너도 눈물을 거두고
열두폭 남치마를 입어보렴
하ㅡ얀 보선발이 그립고나야
눈을 드러 저 푸른 하늘을 보라
땅은 왼통 북처럼 둥둥울린다.

아가야 너도 꿈을 깨려마
해와 달 그려진 기를 내걸자
너도 기대렸을 잔칫날이니
낡은 표주박에 청수(淸水)라도 모실까.
제비야 참새야 비둘기야
새앙쥐 오늘은 너도 귀한 손.
(중략)

꿈도 기렷거니
사슬도 무거웠다.
그늘에서 그늘로
설어워라 사십년
누나야 아가야
피와 살이 뛰논다
내 평생 단 하나의 원(願)이엿거니
어이 노랜들 올지 못하랴
이헌구의 「소박한 노래」

후일 반공문학 제창을 한 평론가의 시다. 여기에도 소박하게 해방을 노래했을 뿐 사상성이 없다. 해방 당시 좌·우익을 넘어서서 해방의 감격을 노래했다는 데 일치한다. 아쉽다면 시로서 예술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해방 후 우리 문학의 흐름에 있어 「해방기념시집」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의가 있다.

Ⅳ. 문단의 분열과 민족문학론

1. 문단의 분열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일제 때 프로레타리아 문학 운동을 벌였던 임화, 김남천, 이원조와 순수문학을 표방했던 이태준 등이 모여서 〈조선문학건설본부〉라는 문학단체를 결성했다. 임화는 실질적으로 이 단체를 주도했으며, 이 단체를 통하여 문인들을 규합하려 했다. 일제 때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하던 사람은 물론 순수문학을 하던 사람까지 망라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문단을 조직하여 그 주도권을 쥐려 했다.

그러나 1930년대 카프 해산 당시 이에 반대했던 이기영, 한효, 송영, 윤기정 등이 따로 1945년 9월 17일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을 조직하여 〈조선문학건설본부〉와 맞섰다. 임화가 주도하는 〈조선문학건설본부〉는 문학이념이 불투명하고, 좌파이외의 문인들이 망라된 데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임화나 이기영 등은 서로 다른 단체를 조직하기는 했으나 원래 문학과 정치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또 일제 때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다. 이념에 있어서는 서로 분열할 이유가 없었다. 그 때 좌파 문인들의 단결을 필요로 한 공산당은 두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종용했다. 그 결과 1945년 12월 13일 두 단체를 해체하고 〈조선문학동맹〉을 조직했다. 〈조선문학동맹〉은 후에 〈조선문학(가)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단체에 관여한 사람은 홍명희, 이태준, 김남천, 설정식, 안회남, 김기림, 정지용 등이다.

한편 일제 때 카프와 대결했던 민족문학파, 해외문학파가 중심이 되어 1945

년 9월 8일 〈조선문화협회〉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후에 〈중앙문화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단체에 관여한 사람은 변영로, 오상순, 박종화, 김영랑, 이하윤, 김광섭, 오종식, 김진섭, 이헌구, 양주동, 서항석, 김환기, 안석주, 유치진 등이다. 이 단체를 배경으로 1946년 3월 13일 우파 중심의 〈조선문필가협회〉가 조직된다. 이 단체에는 정인보, 박종화, 설의식, 양주동 등이 관여했다.

〈조선문필가협회〉가 결성된 후 젊고 패기있는 20, 30대의 젊은 문인들은 이 조직이 결속력이 약하고 활동이 느슨한 데 반발하여 1946년 4월 4일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의 회원은 후에 남한의 문단을 주도했던 김동리, 유치환, 서정주,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등이다. 좌·우 문인들도 이 가운데서 나왔다.

문인들이 각각 따로 단체를 조직했으나 해방직후는 좌파 문인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그들은 1946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문학자대회를 열어 그들의 기본노선을 천명하고, 「문학」, 「문학전선」, 「신문학」, 「예술신문」, 「상아탑」 등의 잡지를 그들의 영향권 아래 두어 작품 발표의 기회를 확대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는 반공 노선을 분명히 했고, 좌파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좌파의 단체가 정비되고 문인들은 전향하거나 월북했다. 남한에 남은 문인들과 월남한 문인들을 중심으로 1949년 12월 7일 〈한국문학가협회〉가 조직되어 좌·우 대립과 갈등은 문단 내부의 사정에서가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 정비되었다.

〈한국문학가협회〉 소속의 문인들에 의해 남한에서는 문단과 문학이 주도되면서 그 이후의 한국문학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해방 이후 6.25까지 월남 또는 월북한 문인들은 다음과 같다.

월남문인 : 김동명, 안수길, 김진수, 임옥인, 황순원, 구상, 최태응, 오영진, 유정(6.25 이전), 김이석, 박남수, 장수철, 박경종, 김영삼, 이인석, 양명문(6.25 이후)

월북문인 : 홍명희(1945), 이태준, 임화, 지화련(1947), 김남천, 이원조, 안

회남, 허준, 김동석, 오장환, 임학수, 김영석, 박찬모, 조영출, 김오성,주영섭, 윤규섭, 황민, 이서향, 한효, 이동규,박세영, 박영팔, 송영, 윤기정, 신고송, 이갑기, 조벽암, 함세덕, 이근영, 지봉문, 박산운, 엄흥섭, 조운(6,25 이전),설정식, 이용악, 박태원, 현덕, 양운한(6,25 이후), 김태준,유진오 등

6·25를 중심으로 문인들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뉘어졌다. 그것은 문학의 세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2. 민족문학론

해방 후 문인들은 일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족문학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절감했다. 문인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학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국가를 건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좌·우로 나뉘어졌듯이 새로운 문학의 방향에 있어서도 문인들의 입장이 꼭 갈지는 않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은 크게 좌파, 우파, 중간파의 논리로 나뉘어졌다.

1) 좌파의 논리

좌파의 논리를 대변한 글들은 임화의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 임무」(「문화전선」, 1945.11), 김남천의 「문학의 교육적 임무」(「문화전선」, 1945.11), 한효의 「예술운동의 전망—당면문제와 기본방침」(「예술운동」, 1945.12), 권환의 「현 정세와 예술운동」(「예술운동」, 1945.12), 한효의 「문학운동의 새로운 방향—파시즘에의 항쟁」(「신세대」, 1946.3), 김남천의 「순수문학의 재태」(「서울신문」, 1946.6), 김병규의 「순수문제와 휴머니즘」(「신천지」, 1947.1), 임화의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활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문학」, 1947.4), 김영석의 「민족문학론」(「문학평론」, 1947.4)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효는 「예술운동의 전망」에서 "진정한 맑스주의 예술이론을 확립해야 할

당위성과 일체의 예술활동을 조직적으로 또는 조직체계에 있어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예술운동은 조직과 마르크스 예술이론이라는 두 가지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화는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활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노동계급의 이념을 기초로 한 인민의 문학"이야말로 민족적이요, 애국적인 "민족문학"임을 주장했다. 나아가서 "현대의 민족문학은 제국주의와 봉건유제에 대한 노동계급과 그들에게 영도된 인민들의 열렬한 투쟁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의 실현을 위한 고매한 노력 가운데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영석은 「민족문학론」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농민층, 시민층의 이데올로기로 하는 통일적 민족의 문학"을 주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이데올로기는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못박고 있다. 나아가 민족문학의 내용으로 하는 세계관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이며 민족문학은 초계급적, 초역사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계급적이요, 당파적이요, 세계사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좌파 논객들의 주장에는 노동자 계급을 강조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족문학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보다 계급, 초역사성보다 역사성을 강조하는 민족문학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당시 좌파의 국가건설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2) 우파의 논리

우파의 논리를 대표하는 글은 김동리의 「순수문학의 진의—민족문학의 당면과제로서」(「서울신문」, 1946.9.15), 「순수문학과 제3세계관」(「대조」, 1947.8), 「민족문학론」(「대조」, 1948.8), 조지훈의 「민족문화의 당면과제」(「문화」, 1947.4), 「순수시의 지향—민족시를 위하여」(「백민」, 1947.3), 김광섭의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백민」, 1948.3.) 등이 있다.

김동리는 「순수문학의 진의」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민족문학이 "세계문학의 일환으로서의 민족문학"인 것처럼 민족정신도 "세계사적 휴머니즘의 일환인

민족단위의 휴머니즘"에 근거한다고 보고, 민족단위의 휴머니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순수문학의 문학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논리의 비약과 추상성이 있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요점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현단계 민족문학은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문학의 건설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좌익측의 주장을 의식하고 한 발언이다. 조지훈은 「순수시의 지향」에서 문학이 "정치에의 예속, 정당과의 야합"을 배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민족문학은 고전주의에 바탕을 둔 문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파 논객들의 주장에는 문학에서 정치성, 목적성을 배제하고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무게를 실어 현단계의 민족문학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좌파가 계급을 강조했다면 우파는 민족을, 좌파가 문학의 정치성, 사상성, 역사성에 무게를 실었다면 우파는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무게를 실었다.

3) 중간파의 논리

문단이 좌·우로 나뉘고 서로 다른 민족문학을 주장하고 있을 때 좌·우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그룹인 중간파가 있었다. 백철의 「문학운동의 재출발기」(「우리공론」, 1947.4), 「신윤리문학의 제창-건국정신과 문학정신」(「백민」, 1948.3), 홍효민의 「신세대의 문학-조선문학이 나아갈 길」(「백민」, 1947.11), 「문학의 역사적 실천-조선적 리얼리즘의 제창」(「백민」,1948.7), 염상섭의 「민족문학이라는 용어에 관련하여」(「호남문화」,1948.5) 등이 있다.

중간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글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홍효민의 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신세대의 문학」에서 우리 민족의 내부 - 특히 문학인들이 분열된 것은 북방의 적색사상인 공산주의를 그 기초로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남방의 자본주의를 그 기초로 하는 재래의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민족 내부의 사정보다도 외래의 힘에 의해 우리 민족 스스로 말려 들어 이런 난투를 벌이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민족문학을 주장하면서도 외래사상의 그늘 아래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양쪽을 비판하고 있다. 순수를 고집하는 이면에는 민족주의라는

것을 만능으로 하는 성향이 포함되어 있고, 프로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고집하고 있는 이면에는 공산당의 문예정책에 맞도록 쓰려고 해서 그 문학은 문학다운 문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문학이란 "조선 현실을 비판하고 해부해서 조선인이 가질 방도와 방향을 지시,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해부하여 좋은 길로 인도할 사람이 문인인 만큼 문인 스스로가 그의 무기인 문학을 버리거나 그 무기를 구부려가지고 전장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고 좌·우 양파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또 「문학의 역사적 실천」에서 "오늘의 조선문단의 현세는 순수문학이란 밀에서 애국적인 방향과 귀족적인 파편을 뭉기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문학을 주창하는 리얼리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창작방법을 운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외세에 의해 분열된 우리민족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학노선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의 오늘의 조선민족의 민족문학은 역사적 실천으로서 조선민족의 통일을 전제로 한 위대한 문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조선적 리얼리즘'을 제창했다.

그가 생각하는 '조선적 리얼리즘'은 오늘의 조선이 외세에 유린되고 있다는 것,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문학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조선적 리얼리즘은 "조선문제를 가장 조선적인 정의와 모랄에서 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적 모랄에서 배반될 때 여지없이 척결하고 폭로하고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효민의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민족은 분열되고 있는데 그것은 외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세를 배격하고 현실을 해부하고 분석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그 정신적 기저에 조선적 모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구체성이 없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반외세, 통일지향, 그리고 조선적 모랄을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V. 순수시와 경향시

혼란과 격변기에는 장르의 성격상 시가 활력을 가질 때가 있다. 해방 후의

시단(詩壇)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문인들이 좌·우로 나뉘어지고 또 거듭되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는 계속 발표되었다. 이 때에 나온 시의 양상은 크게 순수시 계열의 시와 경향시 계열의 시로 나눌 수 있다.

1. 순수시

해방 후 시의 첫 성과는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등 청록파와 30년대 인생파 또는 생명파로 알려진 서정주와 유치환의 활동이다. 이들의 시는 예술성이 뛰어난 대신 정치적 당파적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없다는 데서 순수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발표한 작품에 박목월의 「나그네」(1946), 「윤사월」(1946), 「봄비」(1946), 「청노루」(1946), 조지훈의 「완화삼」(1946), 「낙화」(1946), 「풀밭에서」(1948), 박두진의 「해」(1946), 서정주의 「국화옆에서」(1947), 유치환의 「울릉도」(1948) 등은 순수시를 대표하는 시들이다.

머언 산 青雲寺
낡은 기와집

산은 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피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의 「청노루」

전통적 가락이 있는 리듬, 깨끗하고 맑은 자연, 순수하고 기개 높은 청노루를 노래하고 있다.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너머 산너머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야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싫어……
>
> 해야 고운 해야 뇌가 오면 뇌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
>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 박두진의 「해」

아름다운 자연, 사슴과 칡범 그리고 꽃과 새와 짐승들이 있고, 하늘에는 밝은 해가 있는 정경을 노래하고 있다. 리듬도 급박하면서도 호흡이 막히지 않는 알맞은 것으로 민족의 호흡에 알맞는 것이다.

이 시들은 해방전 순수시를 계승 발전해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시조나 가사에 나타나 있는 자연관이나 서정이 계승되고 있음도 보여주는 것이다.

2. 경향시

경향시는 좌파에 속하는 시인들의 작품으로 예술성보다 사상성, 정치성이 짙은 작품이다.

조벽암의 「가사」(1945), 임화의 「깃발을 내리자」(1947), 오장환의 「병든 서울」(1945) 등은 경향시를 대표한다.

(전략)
아름다운 서울, 사랑하는 그리고 정들은 나의 서울아
나는 조급히 병원문에서 뛰어나온다.
포장친 음식점, 다 썩은 구루마에 차려놓은 술장수
사뭇 돼지 구융같이 늘어슨
끌끌내 더러운 거릴지라도
아, 나의 뼈와 살은 이곳에서 굵어졌다.
病든 서울, 아름다운 그리고 미칠 것같은 나의 서울아
네 품에 아모리 춤추는 바보와 술취한 망종이 다시 끓어도
나는 또 보았다.
우리들 人民의 이름을 씩씩한 새 나라를 세우라 힘쓰는 이들을
.....
그리고 나는 웨친다.
우리 모든 人民의 이름으로
우리에 人民의 공통된 행복을 위하야
우리들은 얼마나 이것을 바라는 것이냐.
아, 人民의 힘으로 되는 새나라
(후략)

오장환의 「병든 서울」

산문적 리듬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하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노래다. 그것은 좌파의 정치 이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해방 직후에는 의외로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고취한다든지, 인민을 강조하는 시가 양산되었고 김기림의 「인민공장에 부치는 노래」(1947)나 상민의 「여직공」(1948)과 같이 직설적으로 투쟁이나 노동의식을 강조하는 시가 나와 시가 점차 구호화(口號化)하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3. 시 론

이런 좌·우 양쪽의 시 세계가 서로 대조적인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도 드러난다.

김기림은 「우리 시의 방향」(1946)에서 "일찌기 우리 시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치를 기피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때 이 땅에서는 정치라면 적의 침략정책의 추궁뿐이었을 적에 시는 그 자신의 피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의미의 정치로부터 비통한 대피와 퇴각을 결행하는 길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벌써 사정이 달라졌다. 오늘에 있어서 정치란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하는 우리들의 생활의 설계와 조직이어야 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의 단계에 있어서는 시가 시의 왕국을 구름 속에 꾸미는 것보다 한 새나라의 건설이야말로 얼마나 시인의 창조의욕에 불을 질러 놓는 것이랴."고 시에 정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더니즘 운동을 벌였던 30년대의 그가 이렇게 변모하고 있고, 그것은 좌파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지용도 「조선시의 반성」(1948)에서 "정치성이 없는 예술이란 말하자면 생활과 사상성이 빈약한 예술인 것이므로 정신적 국면타개에도 방책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는 시에도 정치성이 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파를 대변하는 조지훈은 「순수시의 지향」(1947)에서 "순수한 시정신을 지키는 이만이 민족시를 이룰 것이니 시를 정치에 파는 경향시와 민족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양두구육의 민족시인 계급시의 결탁은 시 및 민족시의 한 이단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양파의 주장이 시에 반영된 것이 위에 열거한 시들이다.

해방 후의 시에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시인과 시가 무엇인가 기여해야 한다는 좌파와 시는 시 이상도 시 이하도 아니라는 우파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다. 문학은 사회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상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좌

파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회성 역사성 사상성을 강조하는 그 배경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이 목표로 해야 했던 것은 민족의 강조,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의 건설이다. 그 점에서 좌파의 논리에 문제가 있으며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우파의 시는 서정의 세계를 노래한 시의 본령에 근접해 있으나 조선조의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사회와 역사의 외면이라는 한계가 있다. 순수시는 자칫 파한(破閑)이나 음풍농월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격변하는 시대에는 독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1948년 우파 중심의 대한민국정부가 들어서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좌파는 이북으로 가거나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어 문학활동도 자연 소멸되었다. 따라서 우파는 정치나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순수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세계는 6.25부터 70년대까지 계속되어 우리 시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방 후 우파 시인들이었던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유치환, 서정주 등은 그들의 시가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에게 널리 읽혀졌으며, 문단의 주요 잡지의 추천위원, 신춘문예의 심사위원 또는 교단이나 강단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그들의 시관(詩觀)을 전파했다. 순수시인 만큼 정치적 격변기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비켜 섰기 때문에 탄압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런 서정세계는 후진들에게 계승되고 시를 세련시키는데 기여한 대신 시대의 아픔이나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Ⅵ. 해방 후의 소설들

1. 문인들의 삶

해방 후에 나온 이태준의 「해방전후」(1946), 김동인의 「망국인기」(1947),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1948)은 해방 전후의 지식인, 그 가운데서도 식민지 작

가들의 삶을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소설들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전후」는 그런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이태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소설가 '현'의 해방전후의 활동을 그린 작품이다. 현은 특별히 어떤 사상이나 주의를 가진 작가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제로 작품을 쓴 일도 없다. 일제 말 전쟁을 치루면서 일제는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전쟁에 협력하도록 요청했다.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 군대에 지원하라고 한다든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을 쓴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일제는 식민지 사람들을 전쟁에 협력토록 하는데 지식인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 때 지식인들 가운데는 그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었다. 어떤 편이냐하면 '현'은 소극적인 편이었다. 청년들이 찾아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느냐고 의논할 때도 그는 성격 그대로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에게 호출장이 왔다. 그는 불안했다. 무엇 때문에 호출장이 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갔더니 요시찰인인 청년들의 가택을 수색하다가 그가 지은 책이 꽂혀 있어 그 청년들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그를 호출했던 것이다. 그는 청년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이 없어 무사하기는 했다. 그러나 주임은 왜 시국에 협조하지 않느냐, 왜 쉬운 창씨개명을 하지 않느냐등 말은 부드럽게 했으나 은근히 협력할 것을 강요한다.

서울에 있다가는 일제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하느니 시골로 낙향하기로 했다. 가족을 거느리고 시골로 내려 갔다. 일제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골도 자유로운 곳은 못되었다. 시골에 살게 되면서 그곳 경찰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좋아하는 낚시도 비상 시국에 한가하게 무슨 낚시냐, 그것부터가 협력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에 그것도 마음대로 못했다. 시골도 완전한 도피처는 못되었다.

어느 날 어용단체인 문인보국회에서 전보가 왔다. 문인 궐기대회가 있으니 올라오라는 것이었다. 현은 내심 올라가기가 싫었다. 그러나 주재소 경찰관의

주목이 겁나 올라가 소극적이지만 그 궐기대회에 참가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다른 문인들처럼 친일 행위를 하고 만 것이다.

해방이 되었다. 전에 좌익작가, 평론가이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단체를 만들고 선언문을 작성했다. 좌익작가들 중심이지만 선언문만 가지고 보면 해방 후 작가로서 취해야 할 내용이어서 현도 서명했다. 그것을 계기로 현도 과거의 소극적이던 생활태도를 버리고 작품도 적극적으로 현실문제를 다루겠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갈수록 좌익작가들은 문학에서 정치성을 드러내고 현을 아는 우익 친구들은 그를 불러 따로 단체를 조직하자고 권유했다. 현은 갈등과 괴로움에 빠진다. 그러는 가운데 현은 점차 좌익작가들의 세계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을 자세히 읽으면 이태준 자신의 경험을 소설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 일제 말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일협력(附日協力)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들의 삶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이태준 개인의 변신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전후」나 「민족의 죄인」이나 「망국인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식인들이 어떻게 현실에 대응했는가를 보이는 소설들이다. 이것은 작가의 고백 또는 변명의 성격이 있지만 한 시대의 작가들, 말을 바꾸면 지식인들의 양심과 삶을 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노동자, 농민의 세계

주로 좌파작가들의 작품이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다. 한설야의 「탄갱촌」(1946), 이북명의 「노동일가」(1947), 이기영의 「개벽」(1946), 한설야의 「자라는 마을」(1946), 이태준의 「농토」(1947)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북명의 「노동일가」는 모범 노동자 김진구 일가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이 일가는 부부가 화목하고 더 배우려는 노력이 있으며 노동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노동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건설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그 일에 성실하게 매진하는 사람들이다.

이기영의 「개벽」은 해방직후 토지개혁 당시의 북한의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인 원첨지 일가의 삶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원첨지 일가와 몰락하는 지주인 황주사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태준의 「농토」는 일제 때 동척과 지주의 착취와 횡포에 시달리던 소작인들이 해방 후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아직도 소작인들에게 남아있는 노예근성의 문제, 토지개혁 과정에서 성실하게 토지를 모았던 안과부의 문제, 새로운 사회의 건설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 북한의 농촌의 변모를 조명했다는 데 특징이 있고 아울러 변신 후의 이태준의 세계를 엿보게 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들은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 없으나 해방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개혁,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외적 상황에 문학이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체제긍정, 체제유지에 문학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해방 후의 북한 문학의 특징을 암시받게 된다.

3. 해방 후 사회의 반영

해방 후 사회의 반영을 다룬 소설로 계용묵의 「별을 헨다」(1946), 주요섭의 「대학교수와 모래배」(1948), 염상섭의 「양과자갑」(1949), 이근영의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1948), 김영수의 「혈맥」(1946) 등이 있다.

「별을 헨다」는 행동성이 없는 전형적인 식민지 지식인인 주인공이 해방 후 귀국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그는 식민지 시대 만주에 있었다. 해방이 되자 가족과 함께 귀국한다. 서울에 도착한 그에게 조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거처할 곳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리저리 떠돌다 하늘의 별이 보이는 곳에 숙소를 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감에 빠진다.

「대학교수와 모래배」도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민족에게 절름발이 교육이나마 베푸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교수가 해방 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 사회의 무질서 앞에 망연자실하는 이야기이다.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의 주인공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는 한편 소설도 쓴다. 그의 소설에 대해서 좌파적 입장을 가진 동료교수인 김교수는 그의 소설이 정치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김교수의 논리는 소설에 정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 정치성이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교수로서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나름대로 예술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윤교수는 문학에서 정치성을 버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윤교수의 발언은 문학의 독자성, 순수성을 전제한 발언이 아니라 당시 문학가동맹원들의 문학에 나타나는 정치성—좌익의 입장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좌익적 사상과 행동으로 끝내 교수직을 그만 두어야 했고, 윤교수는 출세를 위해 민족이나 학문도 버리면서 세속적 영달을 꾀한다. 박교수는 이런 윤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양과자갑」에 나오는 영수도 박교수와 같은 맥락에서는 지식인이다. 그는 일제 때 미국 유학을 했고, 그 때문에 두 번이나 유치장 신세를 진 경험이 있다.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서자 영어를 잘 한다는 사실, 일제 때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학에 시간강사로 나가면서 빈궁한 생활을 한다. 그가 영어를 밑천으로 통역을 하거나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미군정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속물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혈맥」은 의사인 아버지와 학생인 아들이 좌·우익으로 갈라져 활동하다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이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한 가족에게 미쳐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소설이다. 부자간의 끈끈한 정과 윤리가 이데올로기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것이 해방 직후의 우리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그 소설은 정확하게 그 시대의 문제의 핵심을 작품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승한, 신범순 엮음, 「해방공간의 문학, 시 ①②」, 돌베게, 1988. 12.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86. 12.

김재홍, 「해방 후의 현대시 개관」,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83. 2.

김희민 엮음, 「해방 3년의 소설문학」, 세계, 1987. 11.

신형기 엮음, 「해방 3년의 비평문학」, 세계, 1987. 8.

오현주 엮음, 「해방기의 시문학」, 열사람, 1987. 11.

28인 공동집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89. 8.

이우용 편저, 「해방공간의 문학 연구 Ⅰ·Ⅱ」, 태학사, 1990. 3.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3.

정한숙, 「해방문단사」, 고려대출판부, 1980.4.

한국문인협회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2.